

《 聖 句 》

你們所遇見的試探，無非是人所能受的；上帝是信實的，必不叫你們受試探過於所能受的；在受試探的時候，總要給你們開一條出路，叫你們能忍受得住。

哥林多前書 10:13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13

순 서

1. 제3차 정기세미나 ( 주제 : 한중교역의 현황과 전망 )
2. 사회주의 초급단계에서의 종교의 변화규율에 관하여
3. 1월 예산 사용내역
4. 후원상황
5. 각부 모임
6. 회원동정
7. 기도제목
8. 알 림
9. 제4차 정기세미나 ( 주제 : 북방선교의 현황 ) 안내

## 韓中交易의 現況과 展望

이은호 선생(무역협회 특수지역과장)

중국의 인구는 11억이며, 아직도 시장개방이 어렵고, 중국과의 교역상에서 중국자체가 가진 구매력의 부족이라는 문제보다 중국이 가진 체재상의 장애가 크기 때문에 경제수준이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 중국은 우리와 같은 체제에서 볼 때 40 - 50년 정도 차이난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이른바 제국주의의 시방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고자 하는 흐름이 경제 및 종교정책상의 저변에 흐르고 있으며 독립적 경제개발을 모색해 왔기 때문에, 타국과의 경제교류와 협력은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으므로 우리와의 협력 또한 어렵다.

우리의 경험상 경제발달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구의 기술과 자본의 유입이 필수적이었으나, 기본적으로 외국경제로부터 자국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국은 경제외적방법을 사용하여 경제발전을 저지하고 있다. 시구자본주의는 외국자본의 유입을 허용해 자국의 고용효과와 자기나리발전에 이용하고 있으나 중국은 그것을 두려워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고 있어서 외국자본의 유입시 그에 따른 제도적, 체제적 보장이 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교역상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국가간의 교류란 결국 복합적 양상을 띠게 마련이니, 중국에서 현재 경제, 문화적 교류란 그리 원활하지 않다. 현재까지 한국과 중국은 81년부터 교류기 시작되어 10여년이 되었고 1986, 87년에 걸쳐 한국기업의 무지활동의 시도가 적극성을 띄게 되었다. 그러나 89년 현재 중국내 한, 중간의 합작경영회사기 10개정도로 그리 많지않은 실정이다. 다시말하면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실정은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 안목으로 속명적인 경제적 이웃이므로 끊임없는 관계개선을 시도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선교활동이 현실적인 제약이 있으니 선교적 관심과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중국과의 교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해 보자.

중국은 사회주의체제, 즉 사유제가 아닌 공유제에 비탕함으로 우리의 교역과 무지기업의 상대적 개인이 아닌 국가나 공공기업이다. 즉 중국에 있어서는 기업의 경영이나 의사결정이 말단에서 상부로의 계통단계를 기치므로, 의사결정이 개인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을 하는데 있어서 누구에게 얘기해야 하는지조차도 잘 모르기에, 어떤 개인이 일방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또한 계약내용이 합의가 되었어도 또다른 합의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교역상 계약시 시류상의 체결이 하루이침에 무효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으므로 그 계약 지체를 믿을 수 없는 상대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중국인은 절대 믿을 수 없다는 말도 나온다.

또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한다고 할 때 정상적으로는 무역업체를 통해 공급받게 되니, 중국의 실정은 생산업체나 운송업체의 편의위주로 되어 있어 무역업체가 거래당사자에게 신의를 지키기가 어렵게 되어 있으며, 중국무역회사기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종합상사가 확실하게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직접 중국 생산업체와 교섭, 직접 운송을 확인하는 과정이 좋겠으니, 이런 면에서는 기동력과 책임소재가 간단명료한 개인기업이 유리하다고 하겠다.

중국교역에 있어서의 특성은 대표적 아이템이 아닌 경우, 개인이나 중소기업에서 많이 참여하며 끈질긴 인내심과 저돌적인 마음으로 모든 일에 임한다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성공의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부지는 직접가시 경영에 참여해야만이 가능하기에 그만큼 어렵다. 그러나 어려움이란 항상 양면성이 있는 것이다. 중국 교역이 쉽다면 자본이나 기술이 우세한 대기업만 성공할 것이고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발붙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기업이 하기엔 어려운 교역이므로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성공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선교도 마찬가지의 이치일 것이다.

본인이 시절단의 일원으로서 처음 중국에 갔을때 기졌던 좋은 인상은 그후 수치의 방문과 접촉을 통하여 경제적 암담함으로 바뀌었다. 중국은 구원한 역사와 빛나는 문화의 나라이디. 따라서 이 지력의 나리는 경제적 발전을 필연적으로 기치게 되며, 그 과정은 많은 곡절을 거쳐야 가능할 것이다.

중국의 개혁은 획기적인 경제개혁이 필요하다. 현재의 시스템을 개혁하여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을 받아들여 개인기업을 인정해 주고 외국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여야만이 급속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경제적 개혁은 필연적으로 문화, 정신적인 변혁을 의미하며, 이는 그들의 의식구조 속에 자본주의적 요소를 과감히 받아들여게 될 것이며, 중국 선교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천안문사대로 진보적 구조기 되보되었으나 시장경제와 개인기업을 허용하리는 진보세력, 즉 미국유학생들, 조지양을 둘러싼 지식인들이 주도권을 갖는다면 탄력적 운영을 기대할 수 있고 문화적, 종교적 교류에 이랑을 배풀며 경제발전에 주력할 것이다.

문 : 중국의 경제활동 등이 쯤단위로 이루어지는기 ?

답 : 무역은 국기업, 소기업, 개인기업에서, 대외무역은 국기업에서 교역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상해에서 하기도 하니 각 쯤미디 똑같은 교역방식을 취하고 있다. 무역은 제도적으로 중앙에서 세워진 모법에다 각 지방의 특색에 맞게 운영하지만 조금은 유동적이다.

문 : 중국에서 부지한 기업이 10여개 된다고 하셨는데 부지의 양대는 어떠한기 ?

답 : 지금까지의 부지는 부지법인이 홍콩의 법인으로 되어있는 간접부지이다.

문 : 중국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고용되어 있는기 ?

답 : 우리나라 사람은 현재 취업(경영)이 불가능하고 기업경영이 진출할 경우에는 3개월간의 비자를 받아 장기 체류하면서 현장근무를 할 때 가능하다(처음 대우냉장고기업이 진출하였으며 장기체류지도 있음). 유학생인 경우 한국 국적을 가지고 유학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장시기 잘 되면 교계의 교류도 가능해질 것이다.

문 : 개인의 장사와 현지에 송금이 가능한가 ?

답 : 가능하며 제도적으로 보장하나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장사를 해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다면 송금이 가능하다(두산기업은 중국돈을 받지 않고 외화만 받음).

문 : 이시안게임 이후의 진출은 가능한기 ?

답 : 대규모의 체육교류후 그것을 베이스로 교류가능할 것으로 보며, 영사협정등으로 관계가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연변에 관심이 많고 기고싶어 하니 실재적으로 연변에는 어려움이 많다. 연변이 북한과 가까움으로 인해 동화되는 것을 북한사람이 두려워해 연변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북한이 방해하고 있으며, 북한과 중국은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고 지금 상대로는 불가능하다. 북한이 변하면 중국관계는 지동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 북한이 변할 수 없는 이유는 독재시스템이 완벽하게 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듯하지만 사실상은 동유럽보다 경제사정이 좋지 못하다. 동독, 체코기 사회주의 국기 중에 경제적으로 발달한 이유가 사회건설의 가능에 있다고 보아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이듬해 봄까지 예측했으니, 당해 여름에 이르리 첨예한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보아 북한도 언제 어느때 변할지 사회과학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문 : 일본이니 미국은 기업의 진출 활동하는 것이 자유스러운가?

답 : 일본이니 미국도 우리나라의 활동과 별차이가 없으니 우리나라가 중국에 진출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영시관계기 없고 부자보호협정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시울과 북경이 직항로기 가능하고 중국에 관광여행이 많이진디면 정신적 교류기 기능해지고 접촉과 대화함으로 시 쉬이질 것이다.

문 : 중국이 인건비가 싸니까 구식장비로 진출할 수 있나?

답 : 인건비 절약으로 장비개선이 있고 구식장비로 중국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최신식 장비만이 최선이 아님을 그들은 알고 있다.

문 : 중국에 기업이 들어가서 성공하는 방법은 무엇이며 실제로 가능한지?

답 : 중국의 인건비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달에 2만원 정도이며 부자로 진출할 때 계약을 해야 하고 사회보장(의류, 주택등)을 해주어야 하며, 임금의 지출에 대해 계산해야 한다. 또한 그들의 개은 대도도 검토해야 한다. 우리보다 임금이 싸고 경제기 낙후되어 있기에 임금이 싼 것을 잘 활용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문 : 일본이 60 - 70년대에 중국에 진출해서 실패한 이유는 ?

답 : 일본기업은 개방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시기에 중국에 들어갔으며 일본에 대한 적대감정으로 인해 그들 기업을 방해하여 실패했다. 그리니 중국치는 모두 일재며, 지금도 100여 억\$의 무역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문 : 우리나라 사람이 질감성에서 열법공장을 하여 성공했다는대 들이본 적이 있나?

답 : 들이본 적이 없다. 개인돈으로 설립한 것은 추적이 불가능하고 질감성은 인건비가 다른 곳에 비해 비싸다(300원). 중국사람은 현실적이며 영적(靈的)교류기 쉽지 않다. 그리니 우리 교포들과는 쉬울 수 있다.

문 : 6.25사으로 남한사람과 감정이 나쁜 것은 없니?

답 : 없다. 심양에서 기리오캐기 나오는데 전부 우리나라 노래였다. 북한에 대해서는 혐오할 수 있다.

문 : 돈은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나?

답 :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들어갈 때 가져간 돈보다는 적게 가지고 나와야 한다.

문 : 통일교의 중국 진출에 대해 들은적이 있나?

답 : 지동차공업단지인 광주근치 회주에 공장을 새우며, 독일법인으로 들어간다고 들었으나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다. 연변근치에 과학관을 설립할 예정이라고도 한다.



## 사회주의 초급단계에서의 중국사회문제

### 종교의 변화규율이 관하여

제13차 당대회 보고는 사회주의 초급단계기 물질생산측면의 특이한 현상으로서 수준의 차이가 매우 큰 각종 생산력(과학기술, 문화를 포함하여)이 공존하고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아직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완벽한 상부구조를 건립하기에는 각종 조건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필자는 이 분석이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사회주의 경제적 토대와 문화적 조건에 밀접하게 관련된 종교에 이를 적용시켜보면 사회주의 초급단계에서 보여지는 종교의 모습은 각양각색이며 그들이 표방하는 사상의 수준 역시 차이가 극심하다. 따라서 종교의 발전규율은 사회주의 생산관계와의 관계, 인간 정신생활상의 위치, 기대 역할 등의 측면에서 계급사회와 다른 특성을 지닌다. 이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노력을 들이 탐구해야 한다.

종교를 상부구조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사회경제적 기초의 반영을 의미한다. 고대사회나 중세의 봉건적 구조 혹은 근세의 자본주의체도를 불문하고 이들 사회형태의 특성을 종교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종교는 사회의 존재에서 계론적인 반영론과는 구별되며 마르크스는 이따한 관념이라도 일단 독립적인 의식형태가 되면 그와 상대적으로 독립된 내용과 규율을 갖게 된다고 했다. 필자는 종교도 이와 같이 그 시대의 세속적인 현실을 반영하고 자재의 교리와 신학사상 등을 구성하며 이들 사상 지체 역시 발생될 때부터 효력을 상실할 때까지의 과정을 갖는다. 이 과정은 물질적 기초와 사회조건의 제약을 받으며 세속적 현실을 반영한다. 세계의 모든 사물의 발전법칙과 마찬가지로 종교의 발생에서 소멸까지의 과정은 초급단계에서 고급단계로 부단히 발전하고 성숙하는 과정이다. 열매가 익어야 떨어지는 것처럼 충분히 발전, 성숙되어야 비로소 소멸에 이를 수 있다. 열매처럼 언제 종교가 소멸될지는 경험없이 주관적으로 예측할 수는 없다.

종교의 발전을 제거하기만 하면 사람들은 유신론사상의 확산, 신자수의 팽창을 연상한다. 사실 이는 단편적인 생각이다. 마르크스는 자연과학에서처럼 의식형태의 발전과 변혁을 분명히 표현하지 않았다. 종교본체를 단순히 숫자에 의기할 수 없다. 이는 누구도 역시상 수천년 전부터 부락 전체가 행하던 지연송배니 토대미증과 같은 것을 종교가 발전된 고급형식으로 간주하지는 않을 것이다. 종교의 발전, 성숙여부를 구분하는 것을 필자가 생각하기에 종교가 人類의 恩惠의 발전정도의 반영여부 즉 종교가 내포하고 있는 사상적 내용을 보아야 한다. 시방세계의 기독교에서 문예부흥 후에 출현한 이성신학이 그 이전의 몽매주의에 비해 상당히 발전했다고 인정하는 이 유도 비로 여기에 있다. 종교사상의 발전은 물질생시방식이 진보한대 따른 산물이며 종교 지체의 발전의 필수과정이다.

비록 사회주의 초급단계에서 종교가 어떻게 변화, 발전할 것인지를 모두 설명해 낼 수는 없지만 생산력이 발전되고 종교세력이 오랫동안 왕성한 시방국기를 기율로 삼아야 한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는 신도수의 감소 등을 들이 기독교가 시방에서 세속화되었다고 지적한다. 이미 이러한 상황을 지적하는 의도는 종교가 시방세계에서 이미 쇠퇴했고 소멸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일 것이다.

사실은 이처럼 간단하지 않다. 필자는 시방의 기독교가 아직도 많은 역량을 가지고 있고, 전도시업이 계속 확대되고, 기구기 확장되고 있으며 각종 신학피기 과학적인 새로운 성과를 받아들이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해외에서의 종교연구는 '세속화'에 대한 논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미 '再神性化(resacraligation)'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구미 각국에서는 교회나 수도원을 팔고 고도로 현대화된 종교장소를 건설하기도 하는데 이는 원래 자본주의 발판이 평형을 이루지 못한다서 온 것이다. 시방에는 분명히 일생동안 교회에 나가지 않는 신도가 많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이 종교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이 나타난 것은 사회생산, 생활의 리듬이 매우 빨리져서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보기 보다는 집에서 TV를 통해 예배를 보거나 개인적으로 예배를 보는 방식으로 바뀌어졌다.

일부 공공예배는 실제로 신도들의 정신적 자극제니 사고활동을 비련해 준다. 이러한 것은 종교가 자본주의 생산발전에 순응한 것이다. 또다른 측면에서 서방의 신학사상은 상당히 개발되었으며 그주제도 천당, 지옥과 같은 진봉적인 내용보다는 히니님의 진리, 정의를 어떻게 인간에 관찰시킬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다. 이에 따라 흑인신학, 해방신학등 사회상황과 밀접한관련을 갖는 신학사상이 출현했다. 이러한 신학은 신도들이 현실생활에 관심을 갖는 데 이본적 근거를 제공했다. 이는 서방기독교가 적어도 부분적으로 철학적인 사고와 사회문제 연구에 힘을 기울이고 있음을 실명해 주며 흑지는 기독교의 신학유심주의가 '기친 종교형식'에서 '문명화된 철학적 형식'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는 종교가 니이갈 방향을 나타내주는 표시이다.

당13대 정치보고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제영역의 발전이 불균형성을 지적했다. "물질생활의 생산방식은 정신생활의 과정을 제약한다." 종교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말해 경제, 문화가 낙후된 지역에서는 유신론적인 관점이 비교적 유행하고 신지의 비율도 비교적 높다. 그리고 신앙의 내용 역시 원시적인 종교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인간 수명의 장단, 기정의 빈부, 지너의 다과 등이 모두 하늘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는다. 그밖에 우리는 종교적인 광산이니 인간의이지를 위배하고 정상적인 사회질서를 이지럽히는 종교현상 역시 생산수준이 낮고 문맹률이 높은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 문화조건이 양호한 지역에서 그러한 상황은 비교적 적다. 물론 신지들의 사회행위는 그들의 사회적 지위니 정치태도와 관계기 있지만 종교적사상 역시 히니의 요소로 작용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종교신앙상의 충치가 매우 심한대이를 피할 도리가 없다.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사업의 발전에 미리 앞으로 적지 않은 신지가 무신지로 변할 수 있을 것이니. 그렇지만 종교가 역사속에서 변화해 왔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우리는 종교 지제도 저급단계에서 고급단계로 발전하며 경제문화생활이 제고된 후에도 유신론지들의 요구에 적응할 수 있다는 점을 배척해서는 안된다.

그밖에 마르크스주의는 "정치, 법률, 철학, 종교, 문학, 예술 등의 발전 역시 경제발전을 기초로 한 것이다. 그리니 이들(위에서 말한 의식형태) 모두는 서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했다. 종교는 발전된 사회에서도 소멸하지 않고 그것의 일부 내용과 형식이 바뀔 뿐이다. 종교가이렇게 적응력을 지녔다는 것은 종교가 기타의 의식형태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종교는 철학, 문예, 정치 등과 수많은 관계를 맺고 있다. 인류의식의 발전사를 볼 때 종교는 최초에 이성적인 사유활동의 결과였다. 후일에 종교는 법률, 정치, 철학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인간과 자연 혹은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일종의 의식형태가 되었다. 수천년의 역사 속에서 종교와 기타 의식형태는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어왔다. 만약 발전된 사회에서 종교가 발전, 성숙된 형식으로 표현되었다고 말한다면 이는 종교가 기타 문화적인 요소와 개방, 상호접촉, 영향을받은 결과이다. 오늘날에 인간들의 상호관계에는 이미 진공, 절연상대가 존재하지 않는다. 물질생산활동 혹은 정신생산활동을 막론하고 인간의 모든 발전은 주위의 사물과 사방으로 관련을 맺는다. 사람에게 따라서는 종교와 사회생활의 기타 영역을 격리시키면 신앙의식이 신지들 사이에만 머물게 하여 종교적인 의식형태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막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종교를 절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사실 이는 효과가 없으며 행할 수도 없다. 이미 종교의식의 지급, 낙후상태로 인해 도리어 사회의 정상적인 발전을 지해하게 될 것이다.



## 1 월 예산

수 입	지 출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간월이월</td> <td style="width: 20%; text-align: right;">1,098,960</td> </tr> <tr> <td>후원천금</td> <td style="text-align: right;">780,000</td> </tr> <tr> <td>난방기구처분</td> <td style="text-align: right;">80,000</td> </tr> <tr> <td>찬조천금</td> <td style="text-align: right;">100,0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b>월 계</b></td> <td style="text-align: right;"><b>2,058,960</b></td> </tr> </table>	간월이월	1,098,960	후원천금	780,000	난방기구처분	80,000	찬조천금	100,000	<b>월 계</b>	<b>2,058,960</b>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임대료</td> <td style="width: 20%; text-align: right;">300,000</td> <td style="width: 30%;"></td> <td style="width: 20%; text-align: right;">300,000</td> </tr> <tr> <td>전화요금</td> <td></td> <td></td> <td style="text-align: right;">21,880</td> </tr> <tr> <td>강사료</td> <td></td> <td></td> <td style="text-align: right;">30,000</td> </tr> <tr> <td>간시급여</td> <td></td> <td></td> <td style="text-align: right;">150,000</td> </tr> <tr> <td>비품</td> <td></td> <td></td> <td style="text-align: right;">230,000</td> </tr> <tr> <td>교재구입(성경책구입 외)</td> <td></td> <td></td> <td style="text-align: right;">469,000</td> </tr> <tr> <td>잡지구독</td> <td></td> <td></td> <td style="text-align: right;">54,000</td> </tr> <tr> <td>세미나비</td> <td></td> <td></td> <td style="text-align: right;">35,000</td> </tr> <tr> <td>인쇄비</td> <td></td> <td></td> <td style="text-align: right;">38,600</td> </tr> <tr> <td>우송료</td> <td></td> <td></td> <td style="text-align: right;">30,380</td> </tr> <tr> <td>연료비</td> <td></td> <td></td> <td style="text-align: right;">29,600</td> </tr> <tr> <td>사무비</td> <td></td> <td></td> <td style="text-align: right;">10,1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b>월 계</b></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b>월 계</b></td> <td style="text-align: right;"><b>1,398,560</b></td> </tr> </table>	임대료	300,000		300,000	전화요금			21,880	강사료			30,000	간시급여			150,000	비품			230,000	교재구입(성경책구입 외)			469,000	잡지구독			54,000	세미나비			35,000	인쇄비			38,600	우송료			30,380	연료비			29,600	사무비			10,100	<b>월 계</b>		<b>월 계</b>	<b>1,398,560</b>
간월이월	1,098,960																																																														
후원천금	780,000																																																														
난방기구처분	80,000																																																														
찬조천금	100,000																																																														
<b>월 계</b>	<b>2,058,960</b>																																																														
임대료	300,000		300,000																																																												
전화요금			21,880																																																												
강사료			30,000																																																												
간시급여			150,000																																																												
비품			230,000																																																												
교재구입(성경책구입 외)			469,000																																																												
잡지구독			54,000																																																												
세미나비			35,000																																																												
인쇄비			38,600																																																												
우송료			30,380																																																												
연료비			29,600																																																												
사무비			10,100																																																												
<b>월 계</b>		<b>월 계</b>	<b>1,398,560</b>																																																												
◦ 총수입 4,973,000                      총지출 4,312,600                      잔액 660,400																																																															

### ☆ 후원자 상황 ( 1 月 )

박성주.	이동화.	반미정.	박지석.	박동화.	정인숙.	김성순.	김한성.	백정숙.
박정숙.	윤연자.	서기원.	유계준.	김은숙.	박혜영.	이의신.	김일봉.	김승원.
이성철.	용전동.	석귀희.	박선남.	박재현.	이은자.	이영희.	허성도.	최복순.
신흥동.	김구성.	정상봉.	장경순.	김정아.	김학주.	정새은.	이은호.	신길순.
이영숙.	김의득.	나미옥.	박미리.	이남중	<b>41명</b>			

## 각 부 모 임

1. 연구부 : 3월 9일에 이의선 지매가 '중국선교 열미니 알고 있다',  
3월 23일에 이민선 지매가 '선교행정세미나 보고'
2. 번역부 : 2월 14일 낮 11시 30분에 모임.
3. 정기간행부 : 매월 10일, 20일에 정기모임.
4. 총무부 : 3월 5일 저녁 오후 7시에 모임.

## 회 원 능 정

1. 퇴대 교수로 계신 이영구 회원님께서 2월 1일 한달 재류예정으로 중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2. 번역, 출판부 간사이신 변미정 선생님께서 2월 24일(토) 오후 2시에 대릉 육군사관학교내 식당에서 백기연 선생님과 화촉을 밝힙니다.
3. 김용배 형제님과 이민선 지매님이 1월 22일부터 25일까지 갈보리선교회에서 열린 '선교세미나'에 참가하였습니다.
4. 백정숙 지매님이 1월 22일부터 25일까지 '일본을 알지'라는 세미나에 참가하였습니다.
5. 김민상 형제님이 2월 1일부터 3일까지 있었던 모퉁이돌 선교회의 '북방 선교세미나'에 참가하였습니다.

## 기 도 제 목

1. 현 선교회 사무실의 임대사한인 10월 이후의 새 사무실 비련을 위하여
2. 연구원 충원에 따르는 물질을 위하여
3. 현재 번역이 진행되고 있는 '중국기독교 100년사'와 '기독교와 중국' 그리고 'China Mission Handbook'의 출판사 선정을 위하여
4. 보디 알찬 세미나 운영을 위하여
5. 극동방송에서 중국선교지료를 분류, 번역할 지원봉사자를 찾고 있는 일을 위하여
6. 입원중에 있는 박경희 간사님의 쾌유를 위하여

## 알 림

1. 2월 12일에 있는 간사협의회에서 본선교회 상임연구원에 김한성 회원님이 취임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2. 제3차 정기세미나기 1월 29일(월) 오후 7시에 종로2기 YMCA 뒷편 명취원 3층에 있는 본선교회 세미나실에서 무역협회 특수지역과 과장으로 계시는 이은호 선생님을 모시고 “韓中交易의 現況과 展望”이란 제목으로 개최되었습니다.
3. 제4차 정기 세미나 역시 본선교회 세미나실에서 2월 26일(월)에 김한성 연구원을 모시고 개최되오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4. 동계선교 중국어강좌기 초급과 중급으로 나뉘어서 2월 1일(중급)과 2일(초급)에 각각 시작되었습니다.
5. 지난 1월 31일 선교중국어 강좌 개강에 앞서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비디오를 구입했어오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토요성경반이 매월 2째, 4째 토요일 10시에 본선교회 세미나실에서 박성주 선생님의 지도로 성경공부를 하고, 이어서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김용배 전도시님의 인도로 기도후원회의 기도회기 열립니다.
7.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방송대 성경반(방송대 뒷편 동승교회), 저녁 5시 30분에 서울대 성경반(서울대 중문과 사무실)이 각각 성경공부를 합니다.

## 교 제 안 내

- |                                |        |
|--------------------------------|--------|
| 1. 중국어 성경책(신약+서편+잡언; 주음부호 붙였음) | 5,000원 |
| 2. 암송교제 :                      |        |
| 1. 주기도문, 사도신경, 시영디             | 1,000원 |
| 2. 네비게이토 60구절                  | 1,000원 |
| 3. 데이프(1개당)                    | 1,000원 |

## 2월 정기세미나 안내

제 목 : 북방선교의 현황  
 강 사 : 김한성 연구원  
 일 시 : 1990. 2. 26(월) 오후 7시  
 장 소 : 종로2가 YMCA 뒷편 명취원 3층 본선교회세미나실